B is Hip! B -굿즈를 만드는 사람들



깨닫다!



"'모든 존재 행복' 발원, 브랜드 추구미"

바반투(BHAVANTU)

RM이 픽한 패션 아이템 '화제'
불교철학 기반 라이프웨어 인기
"마음 중심 찾는 경험 전해주고파"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바반투 팝업스토어의 모습.

'로카 사마스타 수키노 바반투(Lokah Samastah Sukhino Bhavantu)',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자유롭기를'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만트라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발원하는 의미를 담아낸 브랜드가 바로 불교철학, 요가, 명상에 기반을 둔 '바반투(BHAVANTU)'다.

'바반투'라는 회사명이자 브랜드명을 만든 건 김서현 대표다. 김 대표는 인도 여행 중 만트라를 접했고 이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바반투가 창립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창업 당시 제가 명상에 푹 빠져 있었는데 제품 라인업도 명상 공간을 꾸미는 오브제나 소품들 위주였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붓다와 연꽃 등 불교적 오브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패션 제품으로도 넓어졌죠."

사실 바반투의 라이프웨어 제품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픽한 패션 아이템으로 유명하다. '헤드폰 붓다' 티셔츠와 '옴 로터스' 와이드 핏 팬츠를 RM이 구매·착용한 것이 SNS와 위버스 라이브에 확인되면서 해당 제품들은 품절 행렬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 제품 구매 문의가 들어왔다.

"최근 출시한 제품이 '옴 로터스' 팬츠인데 이것을 RM님이 위버스 라이브에 착용하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RM님의 라이브 방송 이후에 제품 구입과 문의가 엄청 들어왔어요. RM님이 불교도 좋아하고 평소 메시지도 철학적이시잖아요. 저희 제품에 담긴 메시지들과 좋은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바반투의 라이프 웨어 등 제품에는 불교적 메시지가 다분하다. 'Listen to What's Inside of you'(너의 내면을 들어라) 'Shut up and Meditate'(닥치고 명상) 등은 선(禪)불교 사상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요가와 명상에 관심이 높은 김 대표 자신도 신심 깊은 불자다. 그러다 보니 김 대표에게 불교는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였다. 이 같은 불교적 라이프 스타일이 제품군에 전부 녹아 있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3000배와 〈천수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불교는 제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제품을 디자인하면서도 제 내면의 목소리에서 영감을 얻고 표현하려 합니다."

김 대표는 바반투의 제품 라인업을 '불교적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브랜드 정체성을 살린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을 확장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경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장르 한계 없다…불교 커뮤니티로도 확장 추진"

해탈컴퍼니

어버지 스님 도우려 참가한 박람회
재밌게 만든 '불교 밈' 티셔츠 대박
"내가 만난 불교, 대중에 전하는 중"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설치된 해탈컴퍼니 부스.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만난 해탈컴퍼니의 굿즈를 보고 든 첫 인상이다. 만화에서 강조나 큰 소리로 외칠 때 사용하는 말풍선에 붉은 색을 입히고 '깨닫다'라는 돈오의 문구를 윈도우XP 감성의 레트로한 폰트로 써내려간 로고 디자인. 이는 MZ세대에게 일종 불교적 밈(Meme)이 됐고,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졌다. 어찌 보면 해탈컴퍼니의 독특한 감성의 굿즈들은 '불교 굿즈 열풍' 시작을 알린 효시이라고 할 수 있다.

주여진 해탈컴퍼니 대표가 이 같은 굿즈를 만든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주 대표의 아버지는 원주 행복자비선원 주지 태현 스님으로 실담범자(悉曇梵字)에 능통한 전문가이다. 2023년 태현 스님은 한국 실담범자 명인 법헌 스님을 도와 실담범자 전시회를 열었고 전시회에서 주 대표는 문자를 티셔츠에 입히는 작업을 했다. 그때 문득 든 생각. '이걸로 불교를 알려볼까?'

"아버지가 스님이시니까 제게 불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제게 불교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멋진 세계였어요. 이 재미있고 멋진 세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불교라는 멋진 세계를 알리고 싶다는 발원에서 나온 굿즈가 바로 '깨닫다' 티셔츠다. 그는 본격적으로 MZ감성의 밈을 접목해 '깨닫다' '중생아 사랑해' '응~수행정진하면 돼~'와 같이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선보였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최근 해탈컴퍼니는 홈페이지 리뉴얼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완전 휴지기는 아니다. 당장 12월 31일부터 1월 7일까지 아미울과 함께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도파민스테이션에서 신년맞이 팝업스토어를 연다.

더불어 주 대표는 회사 영역도 확장시킬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소품 중심의 굿즈 제작이 주된 사업이었다면 라이프웨어 등으로 제품군을 늘리고 행사기획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는 게 주 대표의 설명이다.

"승복바지를 데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샘플제품을 봤는데 직원 반응은 좋았어요. 이를 비롯해 해탈컴퍼니 팬들을 모아 이벤트 등을 열며 커뮤니티로도 확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신중일 기자

"불교박람회서 만난 감성 굿즈 '반달이' 스님 버전 탄생 배경"

국립공원공단 생태디자인실

스님 버전에 국립공원 관심 증가
공단–국민 연결 · 홍보의 새방식
사찰, 국립공원 보전 중요 동반자

2025년 하반기 굿즈계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 이것 사야 돼'라는 감탄을 나오게 한 굿즈. 바로 '반달 스님'과 '반달 동자 스님'이다.

굿즈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은 국립공원공단의 고유 캐릭터 '반달이'를 스님 버전으로 변주한 제품이다. 굿즈의 제작과 판매를 골든베어상사가 맡고 있지만 그 기획은 공단의 '생태디자인실'이 중심돼 이뤄졌다. 2025년에 직제가 반영된 신생 부서인 생태디자인실은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에 어울리는 시설, 물품, 홍보 디자인을 기획·실현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이영주 국립공원공단 생태디자인실 과장은 "국립공원의 정책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탐방 예절, 자연보전 메시지, 국립공원 고유의 이야기들을 시각 언어로 풀어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도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됐다. 그러던 중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하게 됐고 여기서 MZ세대 감성이 반영된 굿즈들을 만났다.

이 과장은 "박람회에서 불교 굿즈들을 보고 국립공원도 이 같은 감성적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그래서 문화적 상징성과 감성적 디자인이 함께 담긴 굿즈로서 '반달 스님'과 '반달 동자 스님'이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출시된 굿즈는 소위 대박이 터졌다. 출시되자마자 완판 행진에 2차 제작 분까지 모두 소진됐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불교 이미지가 주는 평온함과 위로의 정서가 바쁜 일상 속에서 힐링을 원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감성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굿즈의 성공은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공단의 정책 홍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후기가 공유되면서 국립공원 방문 경험, 자연보전의 필요성이 함께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 '반달 스님'과 '반달 동자 스님' 굿즈의 경우, 구매와 관심을 계기로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함께 늘고 있다. 굿즈가 매개체가 돼 자연보전·문화유산 보호와 같은 공단의 정책 방향을 친근하게 접하게 만든 사례"라며 "이처럼 굿즈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공단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 도구로서 정책 홍보의 새로운 방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오년에도 '붉은 말 반달이' 굿즈를 기획 중에 있으며, 사찰 문화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안에 담긴 다양한 문화·생태 자산을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는 콘셉트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국립공원다운 디자인을 널리 보급하고, 국립공원 시설과 콘텐츠 전반에서 자연 보전의 의미를 담아 친근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디자인실 임직원들이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 굿즈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 조계종 혜원정사

회주 원허효명
주지 인호진일

혜원정사 사부대중 일동

재)고산장학회
영도구노인복지관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재)혜원문화재단
부산영도시니어클럽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사회복지법인 혜원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연제구연선서희어린이집

주소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68번길 47(연산4동) 전화 051)866-7771~3, 010-2153-6236 팩스 051)866-7777